



인도 산띠니게탄에서 연중 가장 큰 축제인 '뽀쉬멜라'(Poush Mela)를 앞두고 주민들이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를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이 위대한 시인이 비슈누신의 화신(化身)이라고 주장할 만큼 추앙한다.

/인도 산띠니게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상 구원하러 환생한 신의 분신... '아바타' 문화의 원형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24> 3부 인도편

8 '화신론(化身論)'

산띠니게탄 = 임동률 기자 exian@kwangju.co.kr

"타고르가 비슈누의 아바타는 아닐까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인이자 학자로 유명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 그가 대학을 세운 인도 북부의 작은 도시 산띠니게탄의 몇몇 주민들은 이 위대한 시인이 신의 현현(顯現)일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타고르가 힌두교에서 세상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 비슈누(Vishnu)신의 아바타(Avatar)라는 것이다. 실제로 산띠니게탄 곳곳의 힌두사원 입구에는 타고르의 동상이 황금칠이 된 채 자리를 잡고 있었다.

12월께 열리는 산띠니게탄의 가장 큰 축제 '뽀쉬멜라'(Poush Mela)에서도 타고르의 사진과 조각상은 힌두신들과 위치를 나란히 하며 숭배에 가까운 추앙을 받고 있었다.

"신은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 힌두교 특유의 믿음

비슈누의 아바타, 사람·동물로 수만개 신화서 활약

성인의 반열에 오르면 그가 곧 신으로 추앙받는 힌두교의 단적인 모습이다.

주민들의 의견에 사브즈플리 센 비슈와바라피 철학과 교수는 단번에 '나'(Nha, 벵갈리어로 아니라는 뜻)라고 말하며 "비슈누의 아바타는 10명이고,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타고르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신성을 모독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아바타 문화는 인도인의 삶과 밀접하다. 곧잘 해외투자에



영화 '아바타' 주인공 나비족의 피부색은 비슈누의 아바타인 라마와 끄리슈나를 연상케 한다.

등장하는, 꼬리가 달린 채 태어난 아기나 팔이 여러개인 아이를 두고 신의 환생이라며 떠받드는 모습은 신은 항상 필요한 모습으로 주변에 존재한다는 힌두교 특유의 믿음 때문이다.

'아바타'라는 단어는 지난 2009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할리우드 영화 제목인 동시에 온라인에서 자신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인도신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산스크리트어로 '화신'(化身)을 뜻하는데,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다.

수만여 개의 인도신화는 이 신의 아바타가 주인공이 돼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라마야나(Ramayana)의 주인공인 라마도 익히 알려진 것처럼 힌두교의 3대 신 가운데 하나인 비슈누(Vishnu)의 7번째 아바타이다.

3대 신 가운데 창조신 브라흐마(Brahma)나 파괴신 쉬바(Shiva)에게도 아바타가 있지만 화신론과 가장 밀접한 신은 비슈누이다. 센 교수의 말처럼 10명의 아바타가 존재하고, 심지어 이 10명에 부처가 9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센 교수는 "힌두교에서 신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본성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미지화한 것"이라며 "다양한 신의 변형이 아바타로 구체화되면서 기존에 없던 다른 것과도 거리가없이 섞인다"고 설명했다. 인도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불교의 원형이 힌두신의 한 모습이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슈누의 아바타는 신화에 나온 순서대로 ▲물고기 마츠야 ▲거북이 꾸르마 ▲멧돼지 바라하 ▲사자인간 나리시하 ▲난쟁이 바마나 ▲도끼를 든 무사 파라수라마 ▲라마야나의 주인공 공 라마 ▲끄리슈나 ▲붓다 ▲미래의 신 깔개로 구분된다. 비슈누는 세상을 유지하는 신으로 설명되는 데, 비슈누의 아바타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힘이 등장할 때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마야나에서 라마가 태어난 이유는 악마 라바나를 처단하기 위한 것이고, 라바나는 신이 죽일 수 없기에 비슈누가 라마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처럼, 여타 아바타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숙 인도어과 교수는 "아바타로 불리는 변형의 개념은 이미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나 영화의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인 나비족의 피부색과 외모가 힌두신화에서 '검푸른 피부색'으로 묘사되는 라마와 끄리슈나를 연상하게 하는 것처럼 대중문화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 멧돼지 바라하·난쟁이 바마나 이야기

수몰된 땅 건져 올리고 악당 소탕

힌두신화에서 세상을 유지하는 신인 비슈누는 인간과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 악을 처단했다. 멧돼지 바라하와 난쟁이 바마나도 비슈누의 대표적인 아바타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멧돼지 바라하

멧돼지 바라하(Varaha)는 히란야크사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비슈누의 세 번째 아바타이다.

오래전 히란야크사는 고행 끝에 브라흐마에게서 자신이 이름 없는 신과 인간, 동물로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은총을 받았다. 하지만 히란야크사는 거멸할 때 실수로 멧돼지를 빠뜨렸다.

강력한 힘을 얻은 그는 곧 오만해졌다. 브라흐마가 잠든 사이 대지를 바다 밑에 가라앉혀버렸고, 신들의 세상마저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브라흐마는 비슈누에게 도움을 청했다. 비슈누는 곧 큰 멧돼지 바라하로 변신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잠긴 대지를 물고 올라왔다. 히란야크사가 이를 막으려 하면서 둘 사이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불사신의 능력을 가진 히란야크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지만 바라하의 송곳니는 히란야크사의 목에 깊숙이 박혀 그의 목숨을 끊었다.

비슈누는 건져 올린 육지에 산과 계곡을 만들고, 현재의 7개 대륙으로 만들었다.

▲난쟁이 바마나

악마 발리는 신들에게 극진한 희생을 지내며 결국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됐다. 강한 힘으로 악마들의 왕이 된 그는 하늘과 땅 모두를 지배하게 됐다. 발리에게 하늘을 빼앗긴



인도 중부 카주라호에 있는 멧돼지 바라하상.

하늘의 신 인드라는 비슈누에게 청을 했다. 비슈누는 인드라의 어머니인 아디티의 아들 난쟁이 바마나(Vamana)로 다시 태어났다.

발리는 바마나의 키를 보고 비웃었다. 그러자 바마나는 발리에게 '세 걸음의 땅을 주라'고 간청했다. 발리가 쉽게 허락하자 바마나는 엄청나게 몸집을 키웠다. 그가 세 발걸음을 걸었는데 발을 한번 옮기자 대지 전부를 밟았고, 두 번째 발걸음은 하늘을 넘었다. 마지막 발을 어디로 옮길까 발리에게 묻자 자신의 교만함을 깨우친 발리는 머리를 밟아주라고 요청했다. 바마나는 발리의 머리를 밟아 지하로 밀어넣었다.

/카주라호=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출발 왕복 셔틀 운행 안내

광주 - 완도 - 제주항 - 완도 - 광주

셔틀버스출발: 06:00 광천 터미널 내
셔틀버스도착: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 됨
패 속 선: 완도 출발 09:00~10:40
제주 출발 17:50~19:30

소요시간: 1시간 40분

패속선+셔틀버스요금

편도 37,000원(한민제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일-제, 제-완 편도는 문의 바람

광주 - 목포 - 제주항 - 목포 - 광주

셔틀버스출발: 06:40분 광천동 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셔틀버스도착: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패 속 선: 목포 출발 09:00~13:20
제주 출발 17:00~21:20

소요시간: 4시간 20분

크루즈+셔틀버스요금

편도 30,000원(한민제포함요금, 추가요금 없음)

체크: 단체 불가, 합인율 및 합인 대상자들 문의 바람

첫날부터 짝~찬 신나는 제주 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 3일 매일 출발

완도 쾌속선 169,000원~

목포 크루즈 155,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수목원테마파크-트리아트, 얼음박물관, 5D영상관

2일자 오설록, 코끼리랜드, 카멜리아힐 동백정원, 석부자테마파크, 올레7코스, 새연교+새섬, 쇠소깍

3일자 교래리 삼나무숲길,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 허브동산, 에코랜드 또는 선녀와 나무꾼, 해녀촌, 친한농수산물매장

포함사항:광주-완도, 목포 왕복셔틀버스(신선착안왕복선박료, TAXI 일정내에 모든 관광지 식사연도-중식3회조식2회/목포-중식2회조식2회) 속소입반호텔 5~6인실

불포함사항:기타드림(1인 10,000원)자유식당완도터미널-완도항 승송

현지 직불관광: 산방산 유람선(17,500원)몽골리안(양식) 등(15,000원) 추가비용:금요일출발 2만원 토요일출발 1만원 2인실이용시 3만원

한일카훼리 대리점, 시월드고속훼리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 www.jeju.be.com 1644-2261